

광주·전남 대기업들 훈훈한 '이웃 사랑'

기아차, 사회복지기관·자매결연 시설에 김장 후원 금호타이어, 홀몸어르신·저소득 가정 밀반찬 나눔 한전, 연탄·난방유·김장...포스코, 쌀 1760포 기탁

광주·전남 지역 대기업들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눠 지역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일 광주시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빛고를 김장사랑 나눔대전'에 참여,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중용 공장장과 박주기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임·직원과 쌍촌종합사회복지관, 무진종합사회복지관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지역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를 통해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자매결연 시설 등에 5000만원 상당의 김지와 김장 비용을 후원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

누고자 김장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기아차 광주공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달 23일에도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담 제막식'에 참여해 광주 첫 기부자로 나서 1억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음악과 함께 가족이 소통하는 밤'이라는 주제로 문화나눔공연을 갖고 지역사랑의 훈훈한 정을 전달했다.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광주KT타워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을 위해 기아차 광주공장은 대관비와 팸플릿, 포스터, 티켓 제작비 등 운영비 일체를 후원했으며, 임·직원들이 행사 참여

를 독려해 뜻 깊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지난달 광주시 광산구 고려인 부부 20쌍의 합동결혼식을 지원했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오는 7일부터 광주·전남 저소득, 장애인,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연말 이웃사랑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원정대를 운영 광주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 100여명에게 소원들어주기과 산타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 내 연탄 지원, 배달도 수시로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도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7일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지역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연다. 또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밀반찬' 지원도 12월에도 계속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동지를 든지 1년을 맞는 한국전력 역시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다. 한전은 전력분야 특화형 사

회공헌(전력설비 인근지역)을 비롯해 유관기관 합동 사회공헌, 따뜻한 한전 만들기 사회공헌활동,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등으로 나뉘 대표 공기업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아 1일부터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국적으로 연탄 200만장 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김장, 난방유 배달, 생필품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기부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1일 광양시청을 찾아 7000여만원 어치의 20kg들이 광양 쌀 1760포대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지역 대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이 이제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이 이익은 물론 다양한 유무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쌀의 모든 것 담았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쌀에 대한 상식과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 '손에 잡히는 쌀 이야기'를 출간하고 1일 본부에서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쌀 이야기' 책 출간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쌀에 대한 상식과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책 '손에 잡히는 쌀 이야기'를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책은 가장 소중하지만 흔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대하고 있는 우리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책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 농경사회 그리고 쌀 문화에 대한 내용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쌀로 만든 전통방식의 레시피(떡, 절편, 화전 등)와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음식도 함께 수록했다. /오광록기자 kroh@

여성경제인협 광주지회장에 이숙희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8대 광주지회장에 그린정보시스템㈜ 이숙희 대표(사진)가 선출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난 30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이숙희 대표가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신임 이숙희 회장은 "여성경제인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원칙에 충실한 협회를 만들겠다"며 "여성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과 경영능력 향상에 이바지해 여성경제인이 국가와 지역사회 경제발전



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재생 에너지와 각종 스마트 기기를 융합한 '스마트 그리드'라는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린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에 적극 앞장서 광주지역 고객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터 31번째 회원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베트남 투자유치 설명회

광주상의 오늘 세미나 개최

광주상공회의소는 2일 오후 2시 7층 회의실에서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공동으로 베트남과의 교역 및 투자에 관심이 있는 지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투자유치 세미나 및 경제협력 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초 타결된 한-베트남 FTA 발효를 앞두고 최근 개정된 베트남 투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정부관계자 및 기업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땅 쉐원 광(Dang Xuan Quang)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부청장이 '베트남 투자환경'을 주제로 기조발표하고, 베트남 각 지방 관계자와 기업인의 설명이 이어진다.

이날 자리에는 베트남 정부관계자와 기업인 30여명, 베트남과 교역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한 인적교류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양질의 노동력으로 인해 베트남 진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베트남 FTA 발효에 대비, 지역기업의 교역 확대를 위해 최근 개정된 투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역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23.93 (+31.96) ▼ 금리 (국고채 3년) 1.77% (-0.01)
- ▲ 코스닥 691.95 (+3.57) ▼ 환율 (USD) 1158.00원 (-0.10)



내년 1월 출시되는 '더 뉴 GLE'.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제공>

더 강해진 벤츠 SUV 온다

최첨단 주행 시스템...내년 1월 더 뉴 GLE·GLC 출시

메르세데스-벤츠가 꾸준히 성장하는 국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 초 새로운 프리미엄·중형급 SUV 모델을 잇따라 출시한다.

1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내년 1월에 M-클래스(W163시리즈)의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GLE'가 출시된다.

더 뉴 GLE는 상위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에서 가장 다재다능하면서 온·오프로드 어느 조건에서도 적합한 주행 안정성, 첨단 안전시스템, 고급스러움을 갖춘 모델이라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

럭셔리 중형급 SUV인 '더 뉴 GLC'도 내년 1월 출시된다. 더 뉴 GLC는 기존 GLC의 완전변경 모델로 새롭게 디자인된 모던한 디자인, 업그레이드된 럭셔리한 인테리어,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기술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친환경 디젤 엔진에 자동 9단 변속기(9G-TRONIC)와 새롭게 향상된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4MATIC을 적용한 더 뉴 GLC 220d 4MATIC과 더 뉴 GLC 220d 4MATIC 프리미엄 등 2개 모델이 국내에 선보인다. /연합뉴스



보해양조 '김제동 공감토크 in 목포' 성료

지난 29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의 '김제동의 공감토크 in 목포'가 청중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김제동의 공감토크 in 목포'는 보해양조의 모델이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인기 있는 방송인 김제동이 목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보해양조는 지난 65년간 목포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이번 행사 또한 한 연말을 맞아 지역 사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일상 속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극장을 가득 채운 목포 시민들의 공감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제동은 목포시민들과 '공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누군가의 위로를 바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아껴야 남을 공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재호기자 lion@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쪼갬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쪼갬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